

## 서구문헌에서 읽어내는 불교사상 파스칼 속의 몽테뉴, 그 '이중독서'

— 「몽테뉴와 파스칼의 불교사상」 펴낸 민희식교수

이 책 그 사람

‘지적 호기심’만큼 삶의 추진력이 되는 것은 없다.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물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잘한 일상사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표지와 목차의 문을 열고 본문의 첫줄부터 꼼꼼히 읽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문헌’의 매력은 쉽게 뿌리치지 못할 유혹이다.

다방면에 걸친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권의 저서, 150여권에 이르는 번역서를 통해 이전 낯익은 얼굴이 된 민희식 교수(56, 한양대 불문과)가 최근 선보인 「몽테뉴와 파스칼의 불교사상」(山房)에서는 문헌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동양과 서양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생활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아냈다”고 이 책의 집필동기를 밝히는 민교수는, 지난해 ‘교수의 여름방학’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파문혀 보냈다고 한다.

평소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 강의주제를 결정하곤 했던 그는, 몽테뉴와 파스칼을 강의하면서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프랑스 근대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했던 파스칼의 「명상록」과 몽테뉴의 「수상록」 강독을 통해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불교적 사고와 가깝다는 점을 느꼈던 것.

“파스칼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불교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파스칼과 몽테뉴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중독서’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그는,

한편으로 되도록 쉬운 문장으로 독자에게 익숙한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체와 정신, 마음의 문제들을 DNA나 효소작용,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보충한 것이다.

“서양의 학문에 깊이 몰든 현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해야 하지만, 머리로써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머리로 이해하려”한다고 우려하는 민교수는, ‘知的 한계’ ‘이성의 한계’를 껴잡고 깨닫고 있는 몽테뉴와 파스칼이 불교적 실천사상인 휴머니즘과도 맥이 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현대과학의 문제점도 해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처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프랑스의 고위인사들이나 문화계 인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민중불교 등 ‘한국적 불교상’에 대한 해외소개작업이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불교의 ‘정신’을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인 불문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한 것이다.

로브그리에, 이오네스코와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일년에 두세번 정도는 프랑스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그는 제자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한다. 라블레와 같은 고전의 번역이 가장 힘들다는 그에게, 계속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문헌의 숲속을 흐르는 시간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 정소연 기자



## 소설로 파헤친 법과 人性的 본질 ‘법문제’ 소재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

— 「저울과 칼」의 작가 송우혜씨

이 책 그 사람

우리 문학에서 법률문제를 소재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이 한 여성작가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연구자로 더 잘 알려진 작가 송우혜(43)씨가 최근 펴낸 「저울과 칼」(나남)이 바로 그 책. 제목에서부터 이 소설이 내용상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짐작케 하는데, 여기서 ‘저울’과 ‘칼’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 저스티스가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한다.

“대학시절 ‘법’이란 세계의 특수성을 알고 무척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법대 친구들이랑 환담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揭示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드러내보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법의 저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욕먹을 짓을 한 자는 욕을 먹어 마땅하다’는 도덕이나 상식을 뒤엎는 것이어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그 이후, 70년대를 보내면서 유신헌법이다 긴급조치다 하는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놓는 일들을 수월찮게 목격할 수 있었지요.”

이런 배반감에서 작가 송씨는 법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과연 법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公然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을 인정토록 규정한 것. 그리고 70년대 후반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여 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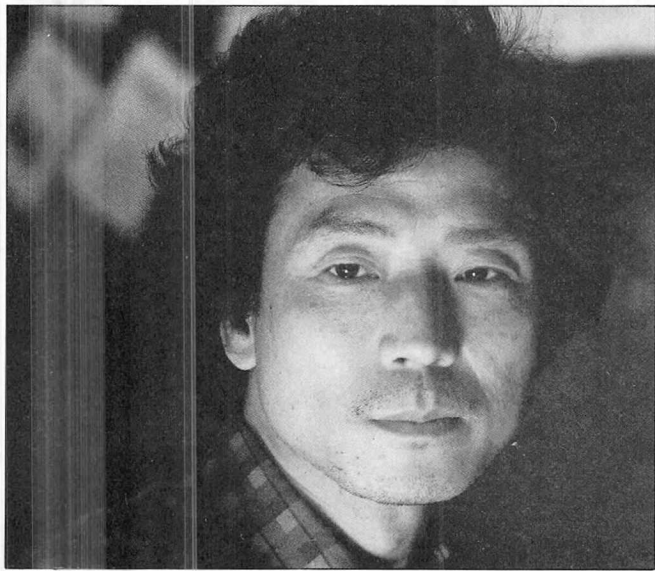
이번에 나온 「저울과 칼」은 지난 78년 도의문화저작상 수상작이던 「저울과 칼과 푸름」을 개작, 장편으로 내놓은 것이다. 현재 「월간중앙」에 역사소설 「홍범도」를 연재하고 있는 그는 법이나 역사문제 등 여성작가들의 한계이자 곧 극복과제이기도 한 ‘무거운’ 소재들에 과감히 뛰어들고 있는데, “살면서 겪고, 보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밝혀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범도 연구 역시 홍범도 장군과 그의 부하였던 친할아버지에 대한 선연한 ‘傳說’들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자 ‘숨은 역사 바로 잡기’의 작업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역사소설은 소재의 제약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내는 데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와 사건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검토는 필수적이구요.”

따라서 늘 공부를 해야 하지만 힘들긴 만큼 보람도 크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매운’ 눈 덕분에 TV사극이며 다른 역사소설 등에서의 허점이 곧잘 눈에 띈다고. 크리스천인 그는 다음작업으로 소재의 폭을 더 넓혀 종교소설을 쓰고 싶어한다.

— 정혜옥 기자



## 출판영업인들이 만든 신간소식지 출판계 동정·칼럼 등도 함께 수록

—「책」 창간한 도서유통개선협의회장 이호림씨

이 책 그 사람

과소비될수록 좋은 상품이 있다면 책이 아닐까. 비정상적인 도서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봄 창립된 영업인들의 모임 도서유통개선협의회에서 최근 신간안내 전문지「책」(4·6배판, 42면)을 발간, 무가로 배포하고 있어 출판계와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개 출판사 영업인들의 모임인 도유통의 회장으로「책」의 산파역을 맡은 이호림씨(전 을유문화사 영업과장)는 “먼저 정상적인 출판물의 신간안내를 무가지로 많은 독자에게 보급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그동안 도유통의 설문조사 등에 적극 동참했던 분들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다”고 출간 동기를 밝힌다.

사무실 확보조차 어려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사무실에 결사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번 작업도 전적으로 주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했지만, 격월간으로 구상했던 예초의 생각을 고쳐 월간으로 발간기로 했으며 부수 역시 늘려 찍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흐뭇해한다.

“매일 전화와 우편으로 독자들의 성원이 쏟아지죠. 우표를 수십장씩 동봉하거나, 장문의 격려편지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간안내 대상도 회원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용의 폭을 한층 넓혀가려고 합니다. 1만4천부 가량의 다음호 제작비도 지방서점의 지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선별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획득하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모양새나

특징으로 볼 때 신선감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책」을 자평하는 이호림씨는 중복출고로 인한 반품과 필요 이상으로 긴 결제일의 어음, 할인율 등을 출판계가 안고 있는 과제로 들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독자의 뿌리깊은 불신을 불식시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의 시급함을 역설하는 그는 “비정상적인 출판물이 판을 치는 출판계에 올바른 영업활동의 필요성은 절대적 명제”라고 덧붙인다.

도유통은 이외에도 출판계에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고자 한다. ‘숫자 채우기’ 식의 도서관의 장서상태나, 연간 50억원의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서점의 도서포장지의 문제, ‘고체채택료문제’ 등 출판계의 민감한 부분을「책」을 통해 사회여론화하여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6월 초 경기도 하남시에서 있을 지방서점 실무자들과의 제3회 정기수련회를 앞두고 무척 바쁘다는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출판계의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직장까지도 그만 둔 열성파로 정상적인 출판을 고집하는 출판영업전문인으로서의 고집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열악한 도서유통구조의 개선은 적극적인 독자 확보와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뿐더러 혼탁일로의 사회를 치유할 유일한 건강치료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그의 신념이다.

—최태원 기자



## ‘절반의 벽’ 허문 현대판 팔불출 더불어 일하는 가정의 애환 그려

—「아빠의 육아일기」 펴낸 맹명관씨

이 책 그 사람

맛벌이 부부가 늘어가면서 “그 좋았던” 가부장적 권위의 시대가 우리네의 살림살이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증하듯 젊은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아내와 분담하는 모습은 점차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그러한 ‘차세대’ 남편의 기수입을 줄곧 자처해 온 맹명관씨(화천공사 기획실장)가 「아빠의 육아일기」(해냄출판사)를 최근에 펴내 또한차례 자신이 ‘팔불출’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제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 주위 친구들의 협박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근원지가 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창회에서 저를 제명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기도 했죠.”

맹명관씨가 가정생활에 있어 남자의 역할에 대해 ‘신사고’를 하게 된 계기는 결혼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가 줄지어 일어나면서부터.

“아내의 직장생활이 일단 그런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직장생활은 제가 결혼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었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 결국 더불어 일하는 가정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기왕 팔불출로 나선 김에 보다 적극적으로 맛벌이 부부에게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맹명관씨가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임신한 아내가 겪는 해프닝을 삽화식으로 메모하다 느낀 생애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딸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돼 실직하게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백수인 제게 맡겨졌습니다. 그래, 기저귀도 빨고, 우유도 먹고 안해 본 일이 없죠.”

맹명관씨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엄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래서 맛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협조하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디다. 처음에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기 쉽기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의 애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 문제는 서서히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맹명관씨가 딸에게 남몰래 품고 있는 ‘희망사항’은 “이 다음에 녀석이 음악가가 되어주었다면” 하는 바람. 그림을 그리는 아내와 글을 쓰는 자신 사이에 딸이 음악을 하면 조화로운 가정이 될 것 같아서라고.

“그렇지만 그런 바람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 길의 선택은 오로지 딸의 몫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맹명관씨 부부의 사랑을 온통 한몸에 받고 있는 외동딸이 벌써 여섯살이 되어, 그저 좋은 사람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 가슴을 덜컹거리게 만들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하는 맹명관씨는 아내 장애진씨의 도움으로 육아일기가 씌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다가 “아, 참. 그 자랑스런 우리 딸 이름은 맹주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권우 기자